

10. 一山 新都市建設事業과 關聯한 水防計劃案內

[團地計劃]

일산신도시는 한강계획洪水位 9.3m(고양군 송포면 梨山浦 지점) 이상으로 지반 높이를 설정하여 단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. 신도시내 저지대는 평균 5m 이상 성토함으로써 단지조성후 지반높이는 9.3~29.8m가 될 것입니다.

[신도시 주변지역 內水배제계획]

신도시주변 저지대농경지 內水의 효율적인 배제를 위하여 九山배수펌프장(펌프 500마력·管徑 1,200mm 7대, 容量 1,823m³/분, '90.5 준공) 및 大化배수펌프장(펌프 500마력·管徑 1,900mm 4대, 容量 1,911m³/분) 이외에 獐項배수펌프장(펌프 700마력·管徑 1,500mm 9대, 容量 2,988m³/분)을 신설하고, 大化배수펌프장에 3만여평의 유수지 설치, 신도시내 호수공원(약 31만평)에 유수지기능 부여, 배수

구역의 배수로 확장 및 신설 등으로 근본적인 홍수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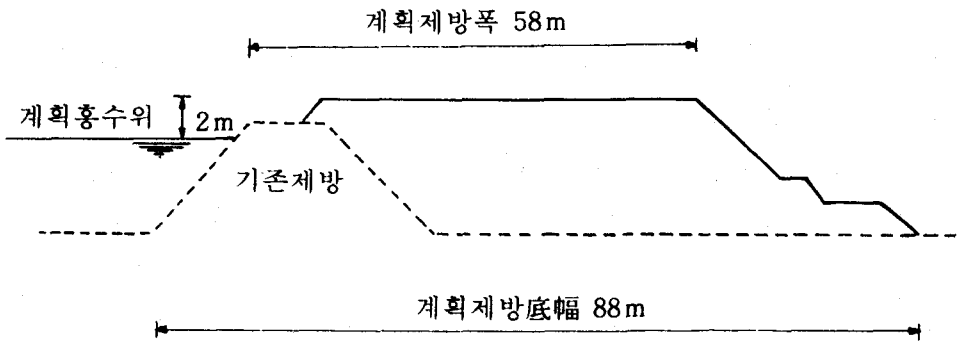
[自由路 건설에 따른 한강물 범람요인의 완벽한 차단]

행주대교로부터 통일동산(과주군 탄현면 오두산 일원)을 거쳐 자유의 다리까지 幅員 10車線의 都市高速化도로기능을 갖는 “自由路”가 건설됨에 따라 신도시 및 주변지역의 한강물범람요인은 완전히 차단됩니다. 自由路는 기존제방과 연결하여 한강계획洪水位보다 2m 높게 도로計劃高를 설정함으로써 外水에 대한 항구적인 침수방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.

저희 공사는 自由路 1단계구간(행주대교~오두산)의 10차선 도로축조와 행주대교~이산포間 6차선포장 및 이산포~오두산間 4차선 포장을 '92년 8월까지 완료함으로써 일산신도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水防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

自由路 표준단면도



일산신도시개발의 기본목표

○ 쾌적한 환경

- 신도시는 쾌적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물, 공기의 오염과 소음공해를 최소화
-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는 물론 레저시설, 휴식시설을 충분히 확보
- 변화있는 건물의 스카이라인, 건물과 자연의 조화, 건물의 적정배치에 의한 아름다운 경관창출

○ 안전한 도시

- 건축물, 도로, 교량, 각종 구조물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·설계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처
- 보행자나 노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확보
- 단지나 주택의 영역성을 분명히 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물리적 환경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.
- 범죄나 화재에 대비한 경비, 경보체제, 방공방재체계를 갖추.

○ 편리한 시설

- 지하철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간 대중교통을 소화하고 다양한 서비스 교통수단을 확보
- 간선도로에 공동구를 설치하여 도로의 잦은 굴착을 사전 예방하고 각종 기반시설의 관리, 유지를 용이하게 함.
- 업무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첨단정보 전달 시스템을 도입,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